

# 우상을 박살내라

Crush Your Idols

시편 135:15-18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0년 10월 31일 설교

<sup>15</sup>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sup>16</sup>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sup>17</sup>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sup>18</sup>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하다.

## 지난 이야기

제가 한국에서 다닌 신학교가 장로교 계통입니다. 장로교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장 칼뱅의 신학을 따르는 교파입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 교가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였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아시지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들었습니다. 종교개혁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루터하고 칼뱅 아닙니까? 신학은 칼뱅을 따르고 교가는 루터를 따르는 학교를 다니다 보니 입학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듣는 말이 바로 ‘개혁’이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중요한 행사가 있는 날은 찬송가로 교가를 꼭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늘 시간에 쫓기잖아요? 그래서 교가를 일절만 부르고 마칠 때가 많았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시작은 아주 좋지요. 그런데 뒤로 가면서 좀 달라집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 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리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일 절만 하고 끝내자 했으니 바로 이어서 “아..... 멘!”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마귀 찬송가가 되어 버립니다. 이 절로 넘어가야 주 예수의 도움으로 마귀를 물리쳐 이길 건데 시간이 없다 보니 늘 마귀가 이긴 상태로 끝나 버립니다. 루터가 이 찬송가를 만들 때는 사는 게 덜 바빴는지 일 절만 부르고 끝낼 거라는 생각은 미처 못 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자꾸 되풀이하니 나중에는 덤덤해져 버렸습니다.

신학교에서 마귀 찬송가를 부른다..... 지어낸 이야기 같지요? 제가 목사가 된 지 스무 해가 거의 되어 갑니다만 지금까지도 웬만해서는 안 하는 한 가지가 찬송가를 다 안 부르고 마치는 겁니다. 시간에 쫓겨도 웬만하면 끝까지 부르는데 이게 바로 신학교 다니면서 결심한 겁니다. 이 정도면 증거가 됩니까?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목사 말 못 믿는 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좀 있다가 알아보겠습니다.

## 개혁 기념일

오늘이 시월 마지막 날입니다. 할로윈이지요? 할로윈이라는 말은 거룩하다는 말에서 왔는데 이 날이 원래 모든 성자를 기리는 만성절이라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1517년 이 날 마틴 루터가 자기가 교수로 있던 비텐베르크 대학의 만성교회 문에다 면죄부 판매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였다고 합니다. 루터가 그 날 정말로 그 반박문을 써 붙였는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반박문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날과 가장 가까운 시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루터가 교회를 개혁한 계기는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는 말 그대로 죄를 면제해 주는 서류입니다. 교회가 발행한 그 면죄부를 돈을 내고 사면 천국에 못 가 중간지대인 연옥에 머물러 있던 조상이나 식구들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간다고 선전을 했습니다. 거짓말이지요. 주 예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지 면죄부 많이 산다고, 그래서 현금 많이 한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잘못 가르친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겁을 쥐 꼬박도 못 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은 그게 잘못인지 알 수도 없거니와 혹 알았다 해도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교회가 칼자루를 쥐었거든요. 칼자루도 보통 칼자루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목숨뿐 아니라 영원의 운명까지 좌우할 수 있는 칼자루였습니다.

이 칼자루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가 잡긴 했지만 겐세마네 동산에서 누구 귀를 내리친 그 칼자루는 아님

니다. 사실 칼자루는 제 말이고 성경에서는 열쇠라 했습니다. 어디 열쇠입니까? 천국 열쇠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었기 때문에 이후 교황이 그 열쇠를 대대로 물려받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내는 권세를 교회 지도자가 가졌다 하는데 지옥 갈 각오를 하지 않고서야 누가 감히 말대답이나 하겠습니까?

## 교회의 타락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열쇠를 보여주면서 ‘예수 믿어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마는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이 열쇠를 교인을 앞에서 흔들면서 그 열쇠의 힘으로 교인들을 겁주고, 억압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특히 교황을 위시하여 추기경, 주교, 신부, 이런 사람들을 성직자라 부르면서 이들이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자인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성경이 뭐라 가르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지면서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라 했지요? 그런데 그 주님은 무시해 버리고 대신 그 주님이 열쇠를 나한테 주셨다 하면서 기도도 꼭 나를 통해서 해야 되고 말씀도 나를 통해서 들어야 된다 하고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중보자 노릇을 하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황도 사람이고 추기경도 주교도 신부도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런 절대 권력을 갖게 되다 보니 휘두르지 않을 재간이 없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다 보니 타락하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권력에도 맛을 들이고 돈에도 맛을 들이고 명예에도 맛을 들이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쾌락까지 탐닉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교황이 첩을 여럿 거느렸고, 첩이 낳은 사생아를 다음 대 교황으로 세운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기가 막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썩을 대로 썩어 악취를 풍겼지요.

그 긴 세월 동안 교인들은 왜 가만있었을까요? 일단은 몰랐지요. 그 당시 조선일보야 있었는지 모르지만 인터넷이 없었으니 알 도리가 없지요. 그야 말로 암흑이었습니다. 혹 정보를 입수해도 배운 게 없으니 그게 잘못인지도 몰랐습니다. 게다가 혹 누가 보아도 분명한 그런 죄를 지었다 해도 감히 비판을 못 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에게 잘못 대들었다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개혁 가능성

그런 무지와 공포 가운데 천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을 보통 중세 암흑기라 부릅니다. 암흑기라는 말은 불신자들이 기독교가 주도하던 시대를 비판해 쓴 말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가 볼 때도 이 기간은 암흑기가 맞습니다. 왜요? 첩 거느리고 사생아 낳은 것도 암흑이지만 그것보다는 빛 아닌 게 참 빛 앞에서서 그 빛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고 주 예수가 생명의 빛이신데 중세 그 오랜 동안 그 빛이 가로막혀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빛 아닌 게 빛 노릇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서 하나님 노릇을 하면 그게 뭐지요? 예, 우상입니다. 중세 천 년은 그런 우상의 시대였습니다. 교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딱 가로막고는 하나님의 권위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였고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한 영광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저도 사람이면서 저한테 잘 보이면 천국에 보내줄 것처럼 속였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면서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체하고, 사람들로부터 온갖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걸 바로잡은 게 종교개혁입니다. 우상을 없애고 그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을 모시는 참 놀라운 일이 16세기에 루터, 칼뱅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도 개혁을 부르짖은 사람이 많고 말씀에 답이 있다 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전에는 그런 개혁이 안 일어났습니다. 전에는 안 되던 걸 16세기에는 되게 만든 어떤 계기가 있었겠지요? 제가 보기에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탈리아의 시인 단테입니다.

단테는 <신곡>이라는 대작을 썼는데 그 작품에서 교회의 부패상을 고발했습니다. 특히 교황의 잘못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돈 좋아하고 여자를 밝힌 어떤 교황은 지옥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쳐 넣었습니다. 단테와 더불어 보카치오도 한 몫을 했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그래도 좀 경건합니다. 그런데 단테의 책을 읽고 자란 보카치오는 좀 달랐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들의 죄악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다 보니 거의 음란서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단테의 <신곡>은 문학성이 뛰어나지만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은 문학성보다는 그저 서양 역사를 바꾸어 놓았

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배울 때 단테의 신곡과 함께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한국에서 중학생 필독도서를 선정하면서 이 데카메론을 넣었다가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성인이 읽어도 낯 뜨거운 내용이 많은데 그걸 중학생 필독서에 넣었습니다. 읽어본 적도 없는 선생들이 모여 필독서를 선정하다 보니 그런 실수도 했겠지요. 저는 읽었습니다만 여러분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혹 다음에 한국판 데카메론이 나오면 그건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 우상 타파

단테와 보카치오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쉽게 말해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무슨 우상입니까? 사람 우상이지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했던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대리인인 줄 알았던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 이런 사람들이 나도 안 짓는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나보다 나은 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은 더더욱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우상이 책 두 권에 맞아 박살이 나 버렸습니다. 우상이 박살이 나면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헛것을 섬겼구나 하고 깨달은 거지요.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안 됩니까? 우상은 별 것 아니지만 우상을 섬기는 우상 종교는 힘이 엄청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우시면 못 깨뜨립니다. 우상은 왜 별 것 아닙니까? 사람이 만든 거니까요.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수공물,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 입이 있어도 말을 못 하고 눈도 못 보고 귀도 못 듣고 숨도 못 쉽니다.

그렇지만 우상 종교는 무섭습니다. 왜요?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도 우상하고 똑같이 되어 버리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도 눈을 뜨고도 못 보고 귀를 갖고서도 못 듣고 입으로도 말을 못 하게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다.” 우상이 우상을 섬기는 나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생각을 못 하게 하고 판단도 못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상이 무서운 겁니다.

## 만인제사장

우상이 박살난 뒤 곧바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단테의 <신곡>이 나오고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써 붙이기까지 이백 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똑똑해졌습니다. 우상에서 벗어나 똑똑해졌고 또 공부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단테 이후 온 유럽에 공부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 부르지요? 예, 르네상스, 문예부흥이라 부릅니다. 르네상스가 고대 그리스나 고대 로마를 동경했지만 그렇다고 꼭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간 운동이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루터나 칼뱅 같은 위대한 개혁자도 다 르네상스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루터가 인문학을 많이 공부한 다음 똑똑해진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보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얻는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칼뱅은 법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인문주의자라 불렀던 그런 칼뱅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읽었을 때 성경을 제대로 풀어주는 <기독교강요>라는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또 함께 깨달은 것이 바로 만인제사장 사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신부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준다고 배웠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거든요? 예수만 믿으면 누구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고 신부나 다른 성자를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은혜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도 그걸 외친 사람이 없지 않았지만 그 때는 우상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 사람들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말이 틀렸습니다. 우상이 살아있었던 게 아니라 우상도 죽어 있고 사람들도 우상처럼 죽어 있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상이 이미 박살나고 없습니다. 사람들도 똑똑해졌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외쳤을 때 듣는 사람이 많았고 온 유럽을 뒤흔드는 개혁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라는 게 생겼는데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천주교라 부르는 그 교회 역시 나름의 개혁을 거듭해 많이 좋아졌습니다.

## 오늘의 우상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날 무렵 생긴 문구 가운데 라틴어로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섰퍼 레포르만다”라는 게 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혁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오백 년 전에 일어난 그 개혁이 다라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개혁은 우상을 깨뜨리는 일인데 없애도 없애도 자꾸만 생기는 게 우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송한다 하면서 마귀 찬송을 부를 수 있고 그제 전통이 되어 버리면 이상한 줄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한 교회는 계속 개혁하고, 개혁한 사람도 계속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개혁을 거듭해야 됩니다.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은 바깥 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봉은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 사원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봉은사에 있는 거나 이슬람 사원에 있는 건 그저 사람의 수공물입니다. 진짜 우상은 사람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으로 섬기려 하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마음에 그런 우상숭배의 본성이 있다는 걸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뒤통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와 닿는 것, 나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게 있으면 그걸 섬기고 싶은 게 사람 본성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혁의 날 생각할 또 한 가지가 사람을 따르지 말자,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면 우상이 된 그 사람도 못 보고 못 듣고 판단도 못 하지만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나도 판단력을 상실하고 결국 너와 내가 함께 망해 버립니다.

## 목사가 우상

요즘 한국교회에 사람 모양을 한 우상이 많습니다. 하나 둘이 아닙니다. 바른 판단력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대신 그저 강단에서 들려오는 말이라면 무조건 아멘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당연히 아멘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 교훈을 가르쳐도 아멘 합니다. 영터리 축복을 쏟아 부어도 아멘 하고, 심지어 농담을 해도 아멘, 음담패설을 해도 아멘 합니다. 옳은지 그른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마비가 되었으니까요.

목사가 나온 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더 알겠지요. 기도도 더 많이 할 겁니다. 성경지식으로 사람을 대한 경험도 많으니 상담 같은 것도 잘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목사라고 남들 못 가진 신통력을 가진 건 아닙니다. “목사님, 나스닥 주식을 뭘 살까요?” “목사님, 어느 길목에다 가게를 낼까요?”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목사가 무슨 무당입니까? 그런 걸 물어보면 “저는 모릅니다” 해야 될 것을 “기도해 봅시다” 하고는 “이 주식을 사세요” “어디 어디에 가게를 내세요” 하고 영터리로 가르쳐 주는 목사도 많습니다. 너도 나도 눈 막고 귀 막고 사는 거지요.

복도 꼭 목사를 통해 받아야 되는 줄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축도라는 건 물론 목사만 하지요. 한국교회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 그렇습니다. 미국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축복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축복합니다”라는 노래도 못 부르겠지요? 복을 목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백 년 전 박살이 난 우상을 레고 조각 맞추듯 다시 조립해 섬기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깨뜨릴 때는 완전 박살을 내 산산조각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는 한 술 더 떠서 목사한테는 저주권이 있다 하면서 교인들을 겁줍니다. 여러분 그것 거짓말입니다.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지은 찬송에서 “옛 원수 마귀는 이 때도 힘을 써” 했는데 그 마귀가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천국 열쇠를 목사가 가진 것 아닙니다. 목사는 성직자도 아닙니다. 목사가 정말 거룩한 직분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다른 직분도 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성직자인 겁니다.

예수께서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라 하셨는데 눈에 아무 것도 안 보이는지 그저 “우리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행복해요!”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목사도 죄를 지으면 꾸중하고 벌주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게 교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간음죄를 지어 세상 법정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목사 본인이 그걸 부인하니까 “우리는 목사님을 믿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럴 분 아니예요” 하고 따라갑니다. 믿음 좋지요. 여러분, 목사 말 믿을까요 말까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인다는 어느 교회 목사가 성추행의 죄를 범했는데 그 분이 없으면 교회가 위태롭다 하면서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는 모양입니다. 젊어도 우상을 섬기면 다 마비됩니다. 실상을 파 보면 우리 시대나 교황이 침을 두고 살던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데카메론 열 권은 종이 쓸 정도니 말입니다.

유명한 목사라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금방 마비됩니다. 유명하다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유명’ 뒤에 ‘무실’이라는 두 글자를 꼭 넣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유명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도 몇

해 안에 유명해질 예정이라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사 말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시겠지요?

## 개혁 또 개혁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권 목사도 바로 하려고 애쓰지만 제가 성경에 없는 영터리 가르침을 들먹거린 다든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짓는다면 비판해야 됩니다. 꾸중도 하고 벌도 주고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우상 아닌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가방끈 길게 늘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자는 말씀입니다. 무조건 아멘 하지 말고 생각해야 됩니다. 자, 목사 말 못 믿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현실이라면 슬프겠지요. 하지만 그런 마음가짐 자체는 좋은 겁니다. 왜요? 목사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니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한 가지만 마음에 잘 담아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개혁을 기념하는 뜻은 살 길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생명의 길을 걷고 있으니 끝까지 잘 걸어 다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생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우상, 바깥 저기에 있는 우상, 강단에서 있는 그 우상까지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박살내고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기며 사는, 죽지 않고 생명을 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